



With You

2020 Spring

통권 36호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 소식지 연결



난민을 돕는
착한 기술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Contents



난민보호 캠페인

시리아 내전 그 후 9년, 고향의 악기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노래하는 나린의 이야기 03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난민을 돕는 착한 기술 04



고맙습니다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09



난민 배움터

영화 <사마에게> 10



고맙습니다

후원 신청서 11



With You가 만난 사람

선한 영향력을 꿈꾸는 배우, 김선영 후원자 12



유엔난민기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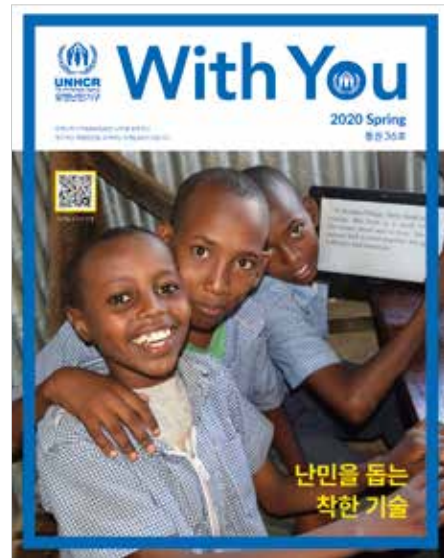
글로벌, 한국 소식 14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시리아 난민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16

Cover Story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촌 학교의 학생들이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UNHCR/Catherine Wachiya

발행인 제임스 린치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20년 3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난민보호 캠페인 — 시리아 내전 그 후 9년, 고향의 악기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노래하는 나린의 이야기

03



나린의 영상 보기

고향의 악기로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노래하는 나린의 이야기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지금, 전쟁 전 시리아 인구의 절반이 넘는 1,100만 명이 강제로 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시리아와 그 주변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70%는 여성과 아이들이며, 9년 전 발생한 내전으로 이들의 삶은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전쟁과 깨어진 삶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열다섯 살 나린(Naleen)이 쿠르드 전통 현악기 탄부르를 품위 있고 자신 있게 연주합니다. 이 악기는 그녀가 고향 시리아에서 쟁겨 온 몇 가지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나린에게 음악은 현재와 고향의 삶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고향에서 사랑받는 악기예요. 악기를 연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고향에 있을 땐 음악 수업도 듣고 집에서 연습도 열심히 하곤 했어요.”

하지만 나린의 구성진 탄부르 연주는 작년 10월, 전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되면 소리가 아주 크고 무서웠어요.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 계속되었는데, 다음 이 우리 차례일까 봐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폭격이 잠잠해지자마자 나린과 어머니는 이웃 마을 삼촌 집으로 대피했고, 곧 다시 국경 너머 이라크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곧 유엔난민기구 난민촌에서 임시 거처, 식량, 담요, 방한복, 의료 서비스 등 시급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린은 이제 어머니와 바르다라쉬(Bardarash) 난민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지와 친척들, 고향 집과 다니던 학교를 포함해 시리아에 두고 온 모든 것이 그리웁습니다. 고향을 대표하는 이 악기를 연주하며 나린은 고향의 삶을 추억하고 또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노래합니다.

오랜 내전 가운데에도,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자 노력하면서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는 나린과 같은 시리아 난민들에게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세요.

“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고 있어요. 한 소녀에 대한
노래인데, 아이들은 전쟁에서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뛰어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시리아의 전쟁을 멈추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에 둘러싸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추천하는 영화와 음악을 보고 듣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식, 5G 등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기술은 개인의 개별 상황을 분석해 적절한 순간에 가장 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20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초개인화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술은 이제 편리함을 넘어서 개인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난민의 삶에는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

전 세계 난민을 비롯한 7,080만 강제 실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난민촌을 비롯해 난민들이 정착한 곳에서 이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난민과 기술 ①



빠르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통한 난민 등록 및 물품을 배포하는 기술 시스템

난민 등록과 신원 확인 절차는 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난민들을 초기 단계에 확인, 선별 및 지원하고, 강제 송환, 임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족 재결합과 같은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난민 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임시 거처, 물과 식량, 의료 및 위생 시설, 생계비 보조 등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인구 데이터를 제공해주어, 난민들이 정기적으로 필요 물품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한 난민 여성이 지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

난민 등록과 배급 절차에서 기술 개선이 모리타니 음베라(Mbera) 난민촌에 살고 있는 말리 난민 56,000명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파티마(Fatima)도 그 중 한 명입니다. 파티마는 고향 말리 북부에서 발생한 분쟁을 피해 2012년 9명의 가족과 이곳 난민촌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난민촌에 도착한 이후 그녀는 매월 식량·생계비 보조 지급소에 찾아갑니다. 현재 시각 오전 10시, 4번 꾀말이 붙은 센터 밖에서 파티마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지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파티마의 걱정과 불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2018년 8월, 새로운 글로벌 배포 시스템(Global Distribution Tool, GDT)이 도입된 이후, 생체정보를 이용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개인을 식별해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배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난민 카드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 덕분에, 배급 절차가 빨라지고 훨씬 정확해졌습니다.” 배급 담당 직원이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또한 기존의 배급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사기나 속임 등 부정행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지치고 힘들었어요.”



드디어 직원이 파티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계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자, 파티마의 사진과 그녀 가족에 대한 정보가 바로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단 5초 만에 파티마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그녀는 지역 은행 담당자가 앉아있는 책상 앞으로 가서 자신의 가족에게 해당하는 한 달 생계비 보조금을 전달받습니다. 난민 카드에서 파티마의 가족 규모를 확인한 직원은 파티마 가족에게 할당된 일정한 양의 기름과 쌀, 비누를 배급해줍니다. 한 직원이 출구에서 핸드폰 앱으로 난민 카드를 스캔하는 절차를 마지막으로 이제 파티마는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15분도 채 안 되어 파티마는 이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리타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글로벌 배포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이 시스템은 유엔난민기구의 디지털 인구 등록, 신원 관리, 케이스 관리 도구를 통합한 에코 시스템인, 프라임(PRIME)* 중 일부로, 현재 모리타니를 비롯해 전 세계 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프라임(Population Registration and Identity Management Ecosystem, PRIME):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등록 및 신원 관리의 중심에 있는 디지털 인구 등록 및 신원 관리 에코 시스템으로, 개인 데이터와 기타 필요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난민을 위한 보호, 지원, 해결책 등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접근 및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난민을 지원하는 정부 및 파트너 기관이 필요 정보와 기술을 함께 사용,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서비스 역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기술 ②

난민과 지역사회, 환경을 살리는 태양광 에너지로 끌어올린 깨끗한 물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급수 시설이 물 부족을 겪던 난민과 비호국 지역사회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실라(Sillah)가 처음 우간다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곳에는 물이 너무 부족해서 그녀는 늪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라의 가족은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파를 재배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입니다.

“양파를 서너 바구니 정도 재배할 수 있을 거예요. 물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여성들은 경작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 남수단 난민 실라 -

실라는 2016년 고국 남수단을 떠나 우간다 비디비디(Bidibidi) 난민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수단의 심각한 상황을 피해 당시 매일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난민촌으로 들어왔고, 난민촌에는 물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실라의 다섯 자녀를 돌보기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당시 비포장도로로 100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트럭으로 물을 공급받았고, 실라를 비롯한 난민들은 몇 시간을

“예전엔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마시곤 했으니까요.”



줄 서서 기다려 물통에 가져올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채워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은 약 20리터이지만, 3년 전 우간다 비디비디 난민촌의 물 공급량은 하루 평균 2.3리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가 파트너 기관, 민간 부문의 재정 지원으로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 급수 시설 덕분에 약 500가구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당 약 85,000리터의 물을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5,000리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잘 관리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담당 직원이 설명합니다.

추후 난민 문제가 해결되고 이곳에서의 난민 보호 활동이 종료되면 우간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이와 같은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갈 앞으로의 세대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말입니다.



우간다 비디비디 난민촌의 태양광 패널의 모습



태양광 급수시설에서 깨끗한 물을 받고 있는 모습

난민과 기술 ③

난민촌 학생들에게 세상의 창이 되어주는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

케냐 다답(Dadaab) 난민촌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말리아 소녀 데코우(Dekow)는 자신의 롤모델인 파키스탄 활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가 얼마 전 학교에 찾아온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그녀와 마주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상상도 못할걸요.” 탈레반에 맞서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싸워온 말랄라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Instant Network Schools, INS)이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데코우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 프로그램은 데코우의 난민촌 교육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는 학생들을 위한 태블릿 PC 25대, 교사를 위한 랩톱 1대, 프로젝트 1개, 스피커 1개, 인터넷 연결을 위한 위성 혹은 이동식 네트워크(4G 와이파이 공유기 1대), 태블릿과 랩톱 충전을 위한 태양광 전지, 온라인 교육 자료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박스’가 제공되며, 단 몇 분이면 일반 교실이 온라인 교육 허브인 ‘인스턴트 교실’로 탈바꿈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덕분에 데코우와 학급 친구들은 이제 난민촌 밖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로부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교사들도 학교에 오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자신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담당 직원 스트레커 -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교실에 나오지도 않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교과서를 보고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 시각화된 자료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어요.”

- 난민촌 교사 모하메드 -

유엔난민기구 담당 직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데코우에게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 프로그램은 교육 경험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롤모델처럼 성장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말랄라는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녀의 메시지와 제 꿈은 서로 맞아있어요. 제 꿈은 변호사가 되어, 교육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속한 사회에 알려져 언젠가 우리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예요.”

- 소말리아 난민 데코우 -

유엔난민기구는 2013년 보다폰 재단과 함께 처음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2014년 케냐 다답 난민촌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현재, 케냐,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의 8개 난민촌 36개 학교에서 인스턴트 네트워크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 86,500명 이상의 난민과 비호국 지역사회 학생,

1,000명 이상의 교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교육 기회를 누렸습니다. 2025년까지 255개 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50만 명 이상의 학생의 디지털 교육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케냐 카쿠마 난민촌의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태블릿 PC로 학습 중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케냐 카쿠마 난민촌의 난민 학생

난민과 기술 ④



에티오피아

악명 높은 나무를 난민 생계,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에너지원으로

에티오피아의 돌로아도(Dolo Ado), 가장 메마른 땅으로도 알려진 이곳에는 ‘프로소피스 줄리플로라(prosopis juliflora)’라는 학명의 악명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이 나무는 20세기 아프리카에 들어왔는데 초기에는 조리용 장작, 목축 울타리, 태양 그늘막, 토양 부식 저지대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며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키가 15미터까지 자라는 프로소피스 나무는 주변 동식물과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길고 뾰족한 이 나무의 가시에 찔려 다치기도 하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동물은 시름시름 병을 앓거나 죽습니다. 뿌리는 이미 메마른 이 지역 토지의 물을 다 흡수해버려서 다른 식물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농부와 목축업자의 경작지를 빼앗아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의 협력으로
시작된 작은 기술이 프로소피스 나무를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 시켜
이 지역 난민과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가공 센터에서 프로소피스 나무를 연료로 만들고 있는 모습



아이샤가 프로소피스 나무에서 재탄생한 고효율 연료를 가지고 자신의 식당에서 요리하고 있는 모습

에티오피아 남부 부르 아미노(Bur Amino) 난민촌에 사는 소말리아 난민 아이샤(Asha)는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 장작을 태워서 요리하던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식당은 종종 연기로 뒤덮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아이샤는 지역 협동조합을 통해 나무 장작 대신 프로소피스 나무로 만든 고효율 연료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를 사용하면 연기 없이 좀 더 깨끗한 방식으로 요리할 수 있고 불씨도 오전 내내 더 오래 갑니다.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하루 치 나무 장작이 약 6,000원(150 에티오피아 비르)인데 비해, 온종일 쓸 수 있는 이 연료 2개의 가격은 약 200원(5 에티오피아 비르)밖에 안 된다고 아이샤는 설명합니다.

아이샤가 연료를 구입한 ‘부르 아미노 협동조합’은 유엔난민기구의 파트너 기관인 이케아(IKEA) 재단의 지원과 지역 단체의 도움으로 2017년 설립되었습니다. 소말리아 난민 여성과 에티오피아 현지 여성 70명 이상이 이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나무를 벌목하는 또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산 프로소피스 나무는 이케아

재단의 기술을 통해, 천천히 연소하면서 연기가 나지 않는 연료로 재탄생해 아이샤와 같은 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르 아미노와 같은 난민촌에서 난민들의 에너지 수요를 맞추는 것은 계속해서 큰 도전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강제 실항민 5명 중 적어도 4명은 요리와 난방을 위해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과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지역사회 주민과 난민 간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원이 고갈될수록 부녀자들은 더 먼 곳까지 땀감을 구하러 가야만 하고, 이들이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간이나 폭행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부르 아미노 협동조합의 이야기는 좀 더 깨끗한 연료를 공급하는 한편, 난민의 생계를 돕고 난민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며 성에 기반한 폭력과 같은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분쟁과 폭력, 박해로 피난길에 오른 전 세계 7,080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난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이들의 필요 우선순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난민이 안전한 곳에서 생명을 구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파트너 기관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한 해결책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난민의 삶에 의미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원 현황 업데이트: 2020년 1~3월 기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예산 구성	검토 승인	본부 전달	전 세계 134개국 전달	난민 보호 및 지원
각 지역사무소에서 조사한 보호대상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과 예산을 구성합니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의에서는 이 예산이 적합한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전액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로 전달합니다	후원금을 승인된 계획에 맞게 전 세계 134개국 420개 지역에 전달합니다	이는 임시 거처, 보건 영양, 법적 지원 및 보호, 교육, 물과 위생 등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영화 사마에게

2011년 알레포 대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하던 와드(Waad)는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시리아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민주화 요구 낙서를 적은 10대들이 체포, 고문당한 사건은 알 아사드 독재 정권에 대한 전국적인 퇴진 시위로 이어졌고, 정부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와드는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찍는 것이 좋았다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 내 계획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 달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삶이 사라져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영화배급사 앳나인필름(At9film) 비하인드 인터뷰 중 -

와드 알-카팁(Waad Al-Khateab) 감독이 2011년부터 촬영한 영상은 그녀의 SNS 계정에 더해 2016년 영국 채널4 코너 ‘인사이드 알레포(Inside Aleppo)’ 등 외신에 공개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촬영본은 그녀가 고국의 위험을 피해 영국에 가족과 정착한 이후 영국 다큐멘터리 제작자 에드워드 와츠(Edward Watts)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2019년 다큐멘터리 영화 <사마에게>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도 개봉한 <사마에게>는 제72회 칸영화제 최우수 다큐상, 영국 아카데미 다큐상 등 전 세계 60개 이상 영화상을 휩쓸었습니다.

<사마에게> 영화 소개: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84571>



<사마에게>는 와드 감독이 의사인 남편, 딸 사마와 함께 시리아 알레포에서 보낸 5년의 삶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알레포 봉쇄 지역에 마지막까지 남아 병원을 지키며 투쟁합니다. 동생의 주검 앞에서 흐느끼는 아이들, 죽은 자녀를 안고 영상을 찍으라고 울부짖는 엄마,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태아를 살려내는 장면까지,

영화는 그 어떤 연출이나 장치로도 대체 불가능한, 가짜 같은 현실을 렌즈에 그대로 투과해, 딸에게 들려주는 어머니의 담담하고 결연한 내레이션으로 그려냅니다. 삶과 죽음이 뒤엉킨,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알레포의 참상은 그녀가 촬영한 영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의 정말 일부만을 담았고, 이 영화에 담은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진 단지 한 장소에서 한 카메라로 담은 것일 뿐이고,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영화배급사 앳나인필름(At9film) 비하인드 인터뷰 중 -

2016년 시리아 전쟁 한복판에서 태어난 사마. 부모는 딸아이가 공습 없는 깨끗한 하늘, 태양과 구름이 떠 있고 새가 지저귀는 하늘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늘’을 뜻하는 ‘사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난 오늘날, 시리아를 뒤덮은 포화 속 뿌연 연기가 걷히고, 시리아와 그 주변국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사마에게 미래를 꿈꾸며 울려다볼 수 있는 뾰족한 하늘을 선물해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지원 업데이트

난민 550만 명 이상
국내 실향민 660만 명 이상
인도적 지원 필요 1,310만 명 이상

특히, 시리아 북서부 이дли브(Idlib) 부근에서 95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이며, 유엔난민기구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1월까지 260만 명의 난민과 국내실향민을 대상으로 담요, 방수천, 방한복, 난방기구, 연료 등 방한용품 보급, 임시 거처 수리 및 보수, 생계비 보조 등을 포함한 월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리아 이дли브 지역에 12회에 걸쳐 긴급구호 비식량물품(Non-Food Item, NFI) 구호 키트 14,500개와 텐트 10,500개 등을 배포해 13만 5,500명 이상의 실향민을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이дли브 지역에서 사회심리적 지원, 법률 상담, 특수한 도움 필요로 하는 난민 선별 및 위탁 서비스 등을 포함한 난민 보호 문제에 개입해 1-2월 동안 매월 약 9,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리아 긴급구호

“시리아와 그 주변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70%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9년이 넘는 내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가족에게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세요!”

후원 신청서

신규 후원 신청을 희망하거나, 기존 후원자 중 추가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1666-514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정보	현재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후원자님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기금선택 ☐ 시리아 긴급구호 ☐ 가장 필요한 곳에

후원금액 ☐ 100만 원이면, 난민 5가족에게 경량텐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1회만)
☐ 50만 원이면, 난민 3,000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의료키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회만)
☐ 10만 원이면, 난민 10가족에게 취침용 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기타(☐ 정기 ☐ 일시) _____ 원

이 내용은 후원금 사용 예시이며,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각 지역의 수요 및 모금 현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은 불호 소식지 1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정기 후원자가 일시후원하는 경우, 본인의 정기후원금에 위의 일시후원금이 1회만 더해져 출금되며, 약정서가 본인의 정기출금일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익월에 출금됩니다.
 *출금일에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당월 25일(10일 출금) 또는 익월 5일(20, 25일 출금) 1회에 한해 재 출금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예금주 _____(서명 또는 인)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꿈꾸는 배우 김선영 후원자 인터뷰



몇 년 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선우 엄마 역할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최근 ‘동백꽃 필 무렵’, ‘사랑의 불시착’까지 인기리에 방영된 여러 작품을 넘나들며 진정성 있는 현실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김선영 님, 유엔난민기구의 오랜 후원자이기도 한 그녀를 ‘With You’가 만나보았습니다.

Kim Sun Young

김선영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바쁜신 일정 가운데 시간 내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얼마 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종영하고, 현재는 다른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엔난민기구에서 연락해 주셔서 흔쾌히 달려왔습니다.

Inspiration

대중의 마음에 가닿는 배우로서 작품마다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에너지와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네, 사람의 마음에 가닿는다는 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공부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면 할수록 욕심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Moments of Childhood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꾸셨나요?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 꿈이요? 그때가 김완선 언니가 유명할 때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댄스 가수가 꿈이었는데, 중학교 때 처음 연극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꼭 연극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릴 적 꿈을 이룬 거죠. 예전에 연극을 할 때 ‘내가 연극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위해, 나의 만족보다 남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화, 특히 연극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아이들과 연극을 하면서 사는 삶,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Sense of Sharing

연극으로 아이들을 위로하고 삶을 나눈다는 생각,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현재 남편분과 함께 운영하고 계신 극단의 이름도 특이한데,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탄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극단 이름이 ‘나베’인데, 남편이랑 극단 이름을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나누고 베풀다’의 앞글자를 따서 ‘나베’라고 지었죠. 우리가 주체가 돼서 거창하게 나누고 베풀다기보다는, 삶에 대한 생각을 반영했던 것 같아요. 나누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삶이요.

평소에도 후원이나 나눔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나요?

지구 반대편에 기아로 죽어가는 세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안 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지,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이었던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인데 당시엔 휴대전화도 없고 책보고 음악 듣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당시 집에 온 우편물 가운데, 후원단체의 우편물이 꽂혀 있었어요. 그때 그걸 왜 봤는지 모르겠지만 낯선 아이들 사진이 보이니까 신기해서 뜯어봤겠죠? 그걸 방바닥에 누워서 끝까지

our Family

그동안 여러 극 중에서 엄마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도 한 아이의 엄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아이, 가족과 나눔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나요?

열 살 된 딸아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 모두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할 때도 많아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제법 대화가 되는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늘 가족이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이와 같이 기도를 하죠.

On Screen - Movie ‘For Sama’

지난 1월 영화 <사마에게> 시사회에도 참석해주셨는데, 추천 영상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소감을 남겨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영화 보고 느꼈던 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등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네, 한 아이의 엄마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영화가 결국은 한 엄마의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픈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Understanding on Refugee Situation

전 세계 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말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쉽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이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말보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멀리서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Note for UNHCR

유엔난민기구에 앞으로 바라는 점 혹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혹은 유엔난민기구 후원자로서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사람에게 난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유엔난민기구.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밟지 않은 길, 지금 뚫을 때는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몇 사람이 계속 밟다 보면 결국 길이 되잖아요? 당장 내 발자국밖에 안 보인다고 길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가 단단해져서 길이 되겠죠. 물론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게 힘들겠지만, 누군가 뒤에 또 거길 걸을 것이고요. 이런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제가 후원하는 단체들에 앞으로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이 기회에 후원 금액을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Goals for 2020

2020년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신지,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활동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배우로서 좋은 연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연기, 더 나아가서 좀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 하고 싶고요. 저희 같은 포지션의 배우들은 연극이 아니면, 주로 드라마에서 주인공 엄마나 이모, 동네 아줌마 이런 역할을 주로 맡는데, 좀 더 다양한 역할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주인공이 유엔난민기구 직원이라면 ‘나눔’에 얽힌 더 새로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쓰임 받고 싶고, 더 좋은 연기를 하고 싶고요. 또 현재 1년에 한 편씩 연극을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좋은 작품 만들고, 기회가 된다면 향후 몇 년 안에는 무대도 다시 설 생각입니다.

본인의 이름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김선영 배우님. 한 아이의 엄마로서, 또 ‘응팔’의 선우 엄마를 비롯해 많은 작품의 엄마 역할에서 보여준 것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난민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김선영 후원자님.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난민기구 소식

글로벌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 개최



2019년 12월 17-18일 유엔난민기구가 스위스 정부와 공동개최한 세계 최초의 난민 회의, 글로벌 난민 포럼(Global Refugee Forum, GRF)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뉴욕에서 선언된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에는 각국 정부, 유엔기구, 개발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난민을 위한 일자리 15,000개를 포함하여 교육, 일자리와 생계, 에너지 및 기반 시설, 책임의 공동 분담, 보호 역량 확대, 재정착을 비롯한 해결책 등 6가지 부문에서 770개 이상의 서약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도출된 유엔난민기구 파트너들의 주요 서약을 소개합니다.

① **이케아(IKEA) 재단**
스웨덴 가구 리테일러 이케아 재단은 향후 5년간의 1억 유로 재단 후원금에 더해, 직업 교육과 언어 수업을 통해 향후 3년간 30개국 이상에서 난민 2,500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② **레고(LEGO) 재단**
레고 재단은 난민 아이들을 위한 놀이 기반의 학습을 위한 지원금 1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③ **보다폰(Vodafone) 재단**
통신회사 보다폰 재단은 유엔난민기구와의 현재 파트너십을 확대해 2025년까지 동아프리카 난민 50 만 명 이상에게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④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 & 미주개발은행(IADB)**
세계은행 그룹은 22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미주개발은행은 1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⑤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
엘모, 쿠키몬스터 등 인형 캐릭터로도 유명한 미국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중동판, '웰컴 세서미'가 2월부터 중동 및 북아프리카 20개국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웰컴 세서미'에는 난민 어린이를 형상화하는 노란색 인형 자드(Jad)를 비롯해 3개의 인형 캐릭터가 새로 등장하며, 숫자나 글자가 아닌 난민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두려움, 화남, 외로움 등의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예정입니다.



⑥ **벤앤제리스(Ben and Jerry's)**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앤제리스가 난민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콘 투게더'라는 새로운 맛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난민 포럼에 달콤한 서프라이즈를 선물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난민과함께(#WithRefugees) 캠페인에 오랜기간 파트너로 참여해온 벤앤제리스는 2022년까지 아이스 아카데미(Ice Academy)를 통해 매년 400명 이상의 난민 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로컬 매장 판매 활동을 통해 25만 명 이상의 캠페인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아이스 아카데미는 직업 교육과 아이스크림 가판대 운영 경험 등을 통해 난민 사업가들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올림픽픽 수상



지난 1월, 유엔난민기구는 스포츠를 통해 난민과 그들의 수용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린 공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로부터 올림픽 컵을 수상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향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 세계 모든 동료들과, 유엔난민기구가 지원하는 실향민과 지역사회에게 이 상의 공을 돌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1906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창립자이자 현대 올림픽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에 의해 만들어진 올림픽 컵은 매년 스포츠 분야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올림픽 정신을 증진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국

2020 레퓨지 서밋,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을 위한 국제 회의



파키스탄 정부와 유엔난민기구는 2020년 2월 17-18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프간 난민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본 회의에는 일란 칸 파키스탄 총리,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참석하여 지난 40년간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대다수를 수용해 온 이란 및 파키스탄의 공로를 치하하고, 국제사회의 향후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채 대사(아프간 파키스탄 특별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인권사회와 유엔나 사무관과 아태2과 김미리나 사무관이 정부 대표단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유엔난민기구 인사 교류 현황

유엔난민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와 맺은 협정에 근거하여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JPO) 코이카 다자협력전문가(KOICA Multilateral Cooperation Officer, KMCO),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영프로페셔널 등의 다양한 인력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각 1명의 JPO와 KMCO가 유엔난민기구 태국 방콕 소재 아태지역본부 및 콜롬비아 보고타 대표부에 파견되어 난민보호담당관으로 근무중이며, 다섯 번째로 선발된 ODA 영프로페셔널 인턴이 유엔난민기구 대외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난민기구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고위직 인사 파견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한 이동휘 전청장이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 국제보호국에서 보충적 수용 경로(Complementary Pathways) 및 재정착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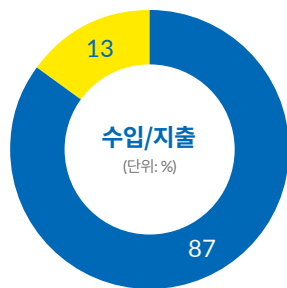
영화 <사마에게> 시사회

시리아 알레포 전쟁 속에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휴머니즘과 모성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사마에게> 시사회에 추첨을 통하여 후원자 50분을 초청하였습니다. 1월 16일 메가박스 이수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는 영화 배급사 (주)옛나인필름의 초청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시사회에 초청해주신 (주)옛나인필름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국대표부 모금 현황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201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에 미화 총 25,850,008달러를 후원했고,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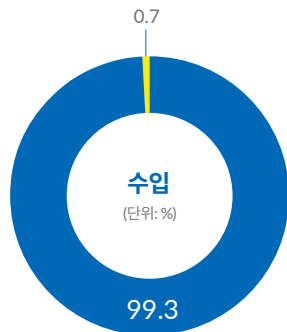


시리아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민간 후원금

2019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는 원화 총 54,999,975,967원이 조성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필요한곳에 (88.2%)

구분	기금	금액(단위: 원)
● 가장필요한곳에 (88.2%)	시리아 긴급구호	2,809,239,509
	전세계 긴급구호 활동	746,327,769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25,624,230
● 긴급구호(6.5%)	동아프리카 긴급구호	14,577,000
	글로벌 쉼터캠페인	2,531,830,791
● 글로벌 쉼터캠페인(4.6%)	글로벌 쉼터 캠페인_우간다	9,760,000
	SBS 희망TV 기금_케냐	223,599,000
● 기타 기금(0.6%)	SBS 희망TV 기금_DR콩고	101,550,000
	나인필리언캠페인 기금*	7,971,000
	MBC W기금**	5,900,000
총		54,999,975,967

* 900만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
** 아프간 어린이 난민 교육 지원

과천청사 어린이집 후원금 전달



2019년 12월 16일, 과천청사 어린이집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만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시청, 텐트 모양 저금통 만들기와 같은 간단한 체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자회로 모아진 수익금을 전달해주신 과천청사 어린이집에 감사드립니다.

벤엘교회 기부금 전달



벤엘교회(담임목사 박광석)에서 전 세계 난민을 위해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2019년 12월 11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주고 계신 벤엘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비치컨트리클럽제주와 함께하는 난민보호 캠페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난민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유엔난민기구 x 해비치 톨&골프 패키지 상품과 기부행사를 연계하여 투숙객들에게 제주의 자연속에서 힐링과 함께 난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패키지 상품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양한 혜택과 함께 유엔난민기구 파우치를 공동 특전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 www.haevichi.com/ccjeju/ko/offers/package
T. 064-766-6200

후원자님께서 전달하신 후원금은 전액 제네바 본부로 보내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 세계 난민 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모금 현황 보기

우리의 봄날

여러분의 봄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COVID-19)로 나라 안팎이 불안하고 침체된 시기이지만,
 그래도 어느덧 봄이 찾아오고 새싹이 움트고 꽃이 필니다.
 시리아 소년 압둘헤이가 들고 있는 꽃처럼
 후원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봄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리아 소년 압둘헤이(Abdul Hay)는 올해로 아홉 살, 시리아 내전과 동갑내기입니다. 2014년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레바논 북부 임시 거주촌에서 어머니와 다른 형제자매들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몇 개월로도
 이리 힘든데, 9년이라니...
 늘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시리아에 평화가
 오길, 일상의 축복이 오길
 기도드립니다.

010-XXXX-7904
 후원자님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하루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010-XXXX-8060
 후원자님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이 잠시도,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보통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평범한 행복이 다시 찾아오길 두 손 모아 바랄게요.

010-XXXX-6229 후원자님

시리아의 눈물을 전세계가
 함께 보았고 많은 이들이
 마음을 담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얼굴을 맞대고 봄 날을
 기다립니다.

010-XXXX-1473 후원자님

친구야! 시리아에 따뜻한
 봄이 오면 바람에 실려
 꽃같은 널 보러 갈게.
 그때까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 사랑해 ^^

010-XXXX-6355 후원자님

따사로운 봄이 오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험난한가 봅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몸부림이겠지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화가 오지 않을까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010-XXXX-5255 후원자님

시리아 가족들에게 저희
 막내딸과 제가 돈을 모아
 매월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시리아
 가족들에게도 서로서로 좋은
 경험이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하겠습니다.

010-XXXX-1705 후원자님

1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봄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문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메시지를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With You 소식지 설문 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더 나은 소식지 내용을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일부 추첨하여 유엔난민기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기간 2020년 4월 3일 (금)까지
참여 방법 우측 큐알코드 스캔 후 링크로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 완료

유엔난민기구 뱃지

